



몽골 식품 통관과 물류 장벽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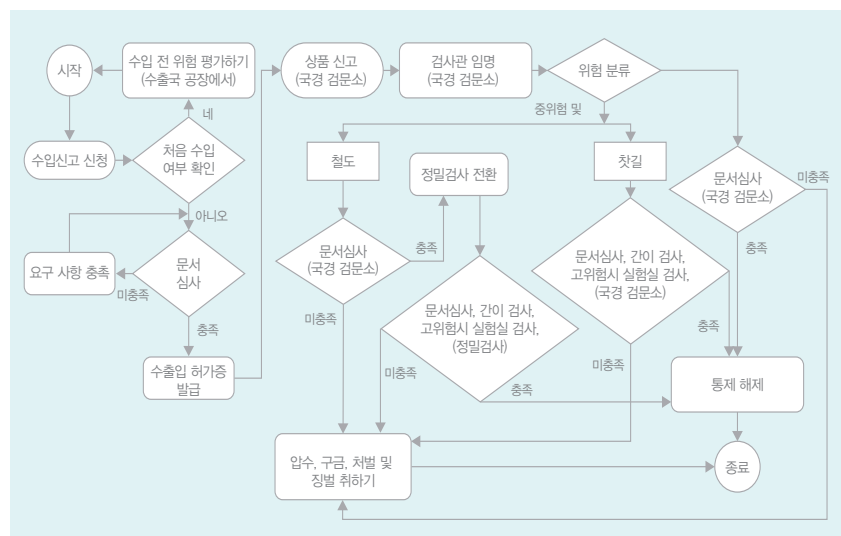
▲ 몽골 화물 소독검사 및 식품 검역 사진

코로나19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교역 또한 여러 곳곳에서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몽골에서도 통관 시 평소보다 시간이 지체되는 등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신선식품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항공이 전면 중단되어 딸기 수입이 일시 중단되는 등 크고 작은 애로로 수출·수입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닌 실정이다.

몽골 정부의 식품 통관 관련 조치사항

-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몽골 정부는 주요 식품의 가격, 조달 및 공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품 수입을 제한하지 않기로 함
- 몽골 국회에서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밀, 쌀, 설탕 및 식물성 기름과 같은 곡류 전략 식품을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면제하기로 조정함
- 몽골의 총 식료품 수입은 2019년도 1분기 대비 3.0% 증가함

[몽골 식품 수입 절차]



몽골 식품 통관 현황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품 사재기 등을 우려하여 몽골 정부에서는 식품 수입에 대한 통관 법 및 규정 변경 없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관은 코로나가 발병된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도록 사업자들에게 권장·경고하고 있다.

수입 통관 진행 절차

❶ 신고하기 → ❷ 세관 발급 서류 확인 → ❸ 물품과 차량 검사 → ❹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부과 및 납부 → ❺ 세관 국경 통과 허가

수입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

❶ 물품 수입 요청서 ❷ 사업자등록증 사본 ❸ 매매 계약서 ❹ (필요시) 육류 검역 증명서 ❺ 패킹 리스트 ❻ 수입 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물품 도착 전 사전 신고

발송 국가에서 출하된 외국 물품(신선류 등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이나 특송물품)은 몽골 국경 통관 전 혹은 국경 세관 통과 후 내륙(울란바토르) 세관의 통관 전에 각각 미리 신고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의 관련 서류는 먼저 사본으로 몽골 도착 전 세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 원본은 몽골 물품 도착 후에 보내야 한다(사본과 원본 비교).

몽골 물류 장벽 주요 애로사항

• 항공 운송은 몽골 총수입의 약 20%를 차지했으나 20년 2월 말부터 몽골 국제항공 운항 중단과 물류 이동 금지, 임시항공편(한 달에 1~2회)을 활용한 최소량의 화물 운송만 가능하다.



▲ 몽골 신규 Khushig Valley 국제공항

- 육상 운송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독검사가 진행되어 배송 기간이 2~3일 추가 소요된다.
-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차량과 화물은 소독되고 있으며 소독비용은 컨테이너당 20,000MNT(비용 수입자 부담)이다.

몽-한 물류 운송업체 간단 인터뷰



MK TRANS WORLD

기존 항공으로 운송했던 유제품 등은 철도를 통해 냉동 컨테이너로 수입되고 있음. 대체운송으로 운송 기간이 늘어나면서 부패하기 쉬운 음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MON KOREA TOP LOGISTICS

항공 운항 수가 확 줄어들고, 항공 외 다른 이동수단으로 보내지 못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증가함. 이로 인해 kg 당 운송료를 \$6에서 \$8로 인상함.



MY FRIEND LLC

현재 임시항공편은 20~30톤 정도 물량밖에 소화하곤 되어 기존 운송 물량 대비 턱없이 공간이 부족한 실정. 항공으로 보내야 하는 물품을 육로를 통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Key Point

항공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 국내 항공사인 MIAT 국영주식회사는 자사 Boeing 767-300 항공기로 기존 승객전용기를 국제화물전용으로 전환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몽골에 '20년 7월 개장 예정인 Khushig Valley 국제 공항이 곧 설립되고 항공 운항이 재개되면 기존 물량 이상으로 항공 운송을 할 수 있다. 항공 시장의 새로운 공항 설립과 아시아나나 추가 몽골 운항 편성으로 항공사 간 경쟁이 생기고 있다. 또한 추가 항공사가 들어올 예정이며 화물운송비, 항공권비가 기존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에서 최초로 중국 텐진시 동장 경제 구역의 항만을 임차해서 '운송 물류 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완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몽골 운송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중국항 이용 없이 몽골항을 통해 수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